

본 자료는 2018년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공연된 <오렌지 북극곰> 프로그램북 파일로,
관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게시되었습니다.

프로그램북에 포함된 모든 원고와 사진에
대한 권리는 모두 국립극단에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의 복제, 재인용을 금하며
개인 SNS와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수 없습니다.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우
렌
지

ORANGE

POLAR BEAR

마지막

작. 고순덕
에반 플레이시

2018.10.11 - 21
백성회장민호극장

<p>한국 Korea</p> <p>2018년 10월 11일(목) - 10월 21일(일)</p> <p>평일 19시30분 주말 15시 화요일 쉽</p> <p>백성희장민호극장</p> <p>문의 1644-2003</p> <p>14세 이상 관람가 (중학생 이상)</p>	<p>영국 United Kingdom</p> <p>2018년 11월 1일(목) - 11월 10일(토)</p> <p>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 (The Door)</p> <p>www.birmingham-rep.co.uk</p>	<p>KOREA-UK TYA PROJECT</p> <p>한국-영국 청소년극 프로젝트</p> <p>국립극단 NATIONAL THEATRE COMPANY OF KOREA</p> <p>THE REP BIRMINGHAM REPERTORY THEATRE</p> <p>한영 HANYONG THEATRE</p> <p>BIRMINGHAM CITY University</p>	
공동제작: 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 한영씨어터 협력: 버밍엄시립대학교			
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 Birmingham Repertory Theatre 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는 영국의 대표적 연극단체 중 한 곳으로 버밍엄과 그 밖의 여러 공동체에서 연극에 대한 사랑을 고취시키는 데에 미션을 두고 있다. 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는 매년3개 극장에서 60편이 넘는 작품을 제작하며, 영국 전역 및 세계 무대를 순회하고 있다. 새로운 작품 개발을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두고 지난 15년 간 130개 이상의 연극을 제작하였다. 또한, 청소년 연극 그룹을 통해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고, 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 창작 개발 지원(REP Foundry Initiative)을 통해 작가, 감독 및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영씨어터 Hanyong Theatre 한영씨어터는 2005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국과 한국 간 이중언어 연극 협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대표작인 <다리 Bridge>는 한국전쟁에 관한 작품으로, 참여한 배우들의 모국어로 연기를 하면서, 서로간의 균형잡힌 협업을 펼침으로써 새로운 연극작업을 선보인 예시가 된다 있다. 이 작품은 서울 및 대한민국 전역, 영국 버밍엄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아시아지 세계총회에서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또 하나의 대표작으로는 영국의 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 한국 극단 '즐거운 사람들', 일본의 어린이극축제 '키지무나 페스타, 플레이하우스 '노리'의 합작을 통해 3개 국어로 제작된 연극 <요기트를 찾아라>가 있다. 버밍엄 펠즈워스에 기반을 둔 한영씨어터는 이중언어로 된 연극 과정을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며 놀라운 방식으로 관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버밍엄 시립대학교 버밍엄 왕립 콘서바토리 Royal Birmingham Conservatoire @ Birmingham City University 버밍엄 왕립 콘서바토리는 버밍엄 시립대학교의 공연예술학교로 1859년 버밍엄 음악 학교로 설립, 1970년 버밍엄 미술학교의 일부가 되었고 최근 버밍엄 연기학교와 함께 예술 수상작으로 선정된 버밍엄 중심부에 위치한 건물로 옮겨갔다. 영국에서 음악 및 연극부문에서 우수한 위치에 있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이 전 세계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구축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고 있다. 버밍엄 시립대학교는 연극 <오렌지북극곰>을 통해 학교의 미션에 부합하는 국제적 협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며,이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학생들을 통하여 프로젝트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술감독: 록산나 실버트(Roxana Silbert) 행정감독: 스튜어트 로저스(Stuart Rogers) birmingham-rep.co.uk@BirminghamRep	디렉터: 피터 윈-윌슨 (Peter Wynne-Willson) Website address tbc with Peter	총장, 버밍엄 왕립 콘서바토리 : 줄리안 로이드 웨버(Julian Lloyd-Webber) 부총장, 버밍엄 시립대학교: 필립 플로웜(Professor Philip Plowden) Bcu.co.uk/conservatoire	

<p>출연진</p> <p>김민주 Kim Min-Ju</p> <p>지영 Jiyoung</p>	<p>라자크 쿠코이 Razaq Kukoyi</p> <p>윌리엄 William</p>	<p>강정임 Kang Chgong-im</p> <p>지영 할머니 오 Jiyoung's Grandma 편.</p>	
			
<p>연극 <우리가 고아였을 때> / <밤이 되었습니다> / <젠터 트랜지션> / <좋아하고있어> / <브레인컨트롤> / 2016 <오렌지북극곰></p> <p>영화 <사랑 하는 사람> / <사람 사는 소리> / <Peach Peach> / <DaheeDie> / <하우스레이크> / <넌 누구니></p>	<p>연극 < Much Ado About Nothing> / < the Young Associate Project> / < Sticky></p> <p>영화 <His House> / < Uncle> / < Our Loved Boy> / < The Last Tree></p> <p>라디오 드라마 < Jabota Bridge> / <Sex ED - Enron></p>	<p>연극 <행복한 날들> / 2016 <오렌지북극곰> /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의문의 사건> / <페르귄트> / <소설가 구보씨의 1일> / <로미오와 줄리엣> / <상사몽> / <땀저 나는 제자리에 없다> 외</p> <p>뮤지컬 <친정엄마> / <러브레터> / <빨래></p>	

타히라 샤리프 Tahirah Sharif

사라 오 Sarah 편.



연극 <In His Image> / <Crawling In The Dark> / <Moon On A Rainbow Shawl> / <Arabian Nights> / <Firebird>

영화 <A Christmas Prince > / <The Invisible Woman> / <A christmas Prince: The Royal Wedding>

드라마 <Doctors> / <Casualty> / <See me> / <Whitechapel> / <One Night > / <Waterloo Road>

홍아론 Hong Ah-Ron

지영 아빠 오 Jiyoung's Dad 편.



연극 <1945> / <남산에서 길을 잃다> / <비행소년 KW4839> / <로미오와 줄리엣> / <아메리칸 환갑> / <운명> / <두드려라 맥베스> / <맥베스> / <리어 왕> / <남산에서 길을 잃다>외

마이클 코쥬 Michael Kodwo

아더 오 Arthur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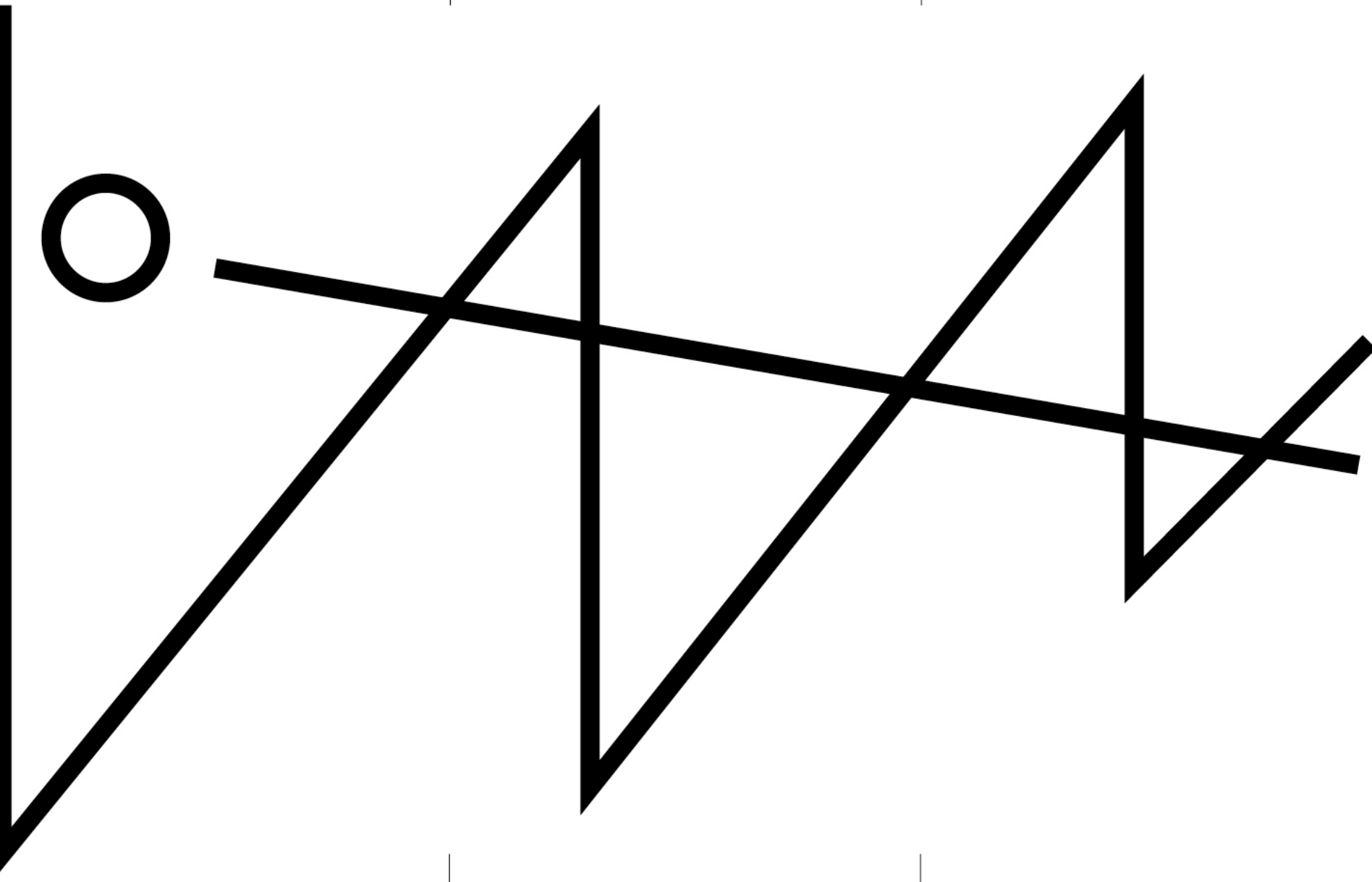


사진. 장성용,정원근

연극 <The Good Person Of Sichuan> / <Flare Path> / <Candy Cansino Checks In> / <One Man Two Guvnors>

소년은 저기 바다 건너 영국의 한 아파트에 있다. 영국으로 이민 와서 닥치는 대로 일하는 엄마 때문에 소년은 늘 혼자.

소녀는 저기 바다 건너 한국의 한 아파트에 있다. 어릴 적 떠나버린 엄마 때문에 할머니랑 살고 있는 소녀 또한 늘 혼자.



A boy is all alone at a flat somewhere in England. He immigrated to England with his mother, and because his mother works day and night to make a living, the boy is always alone.

A girl is all alone at a flat somewhere in Korea. Her mother left the family, and now the girl lives with her grandmother. The girl is always alone.

They are both going through growing pains, the boy grappling with his new identity as an immigrant to the country and the girl struggling with her new identity as a woman. They are both invisible in school, and while floating like two melting ice bergs, the two meet and realize they are alike. And for a short while, the world seems to be moving in the direction that they wanted; the girl is about to meet her mother, and the boy finally becomes close to Sarah, the girl he has been interested in.

하지만, 세상은 다시 사나운 폭풍우가 되어 이들을 마구 뒤흔든다. 뉴스에는 여전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소년의 엄마는 부당하게 일자리를 뺏기고, 소녀 엄마는 새 가정을 꾸리고, 소년이 의지했던 사라는 사라지자고 하고, 소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태희는 기획사 성추행 사건으로 추락하는 등 이들을 둘러싼 상황들은 견잡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 쓰러져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But a storm comes and their world is turned upside down. The boy's mother loses her job, the girl's mother remarries and starts a new family, Sarah tells the boy to run away with her, and the girl finds out that Taehee, whom the girl wanted to get away from, has been involved in a sexual harassment at her agency. Overwhelmed by the events that are happening around them, they realize they have been stranded somewhere in life.



사진. 장성용, 정원근



<div>Boy 소녀 Boy 소녀</div>	<div>And he senses her there – this Girl. 소녀는 거기서 소년을 감지한다 - 이 소년. the Girl is off to school. 소년은 학교에 간다.</div>		
	<div>Cocopops splashing 침병대는 코코팝스 Music exploding 폭발하는 음악</div> <div>쿵 떨어지는 폭탄 Bombs thudding 뿜어지는 빙하 물 Ice water spraying</div>		
<div>밥 먹었? Have you eaten? 부지영! Bu Jiyoung!</div>		<div>I can’t today 오늘은 안 돼 No. On the pain. The moment that follows. 아니. 고통에. 그 순간 순간을. I like you. 너 맘에 든다. You don’t even know my name. 내 이름도 모르잖아.</div>	
	<div>Runs. Jumps. Rolls. Gets shot and dies. Starts again. 달린다. 점프한다. 구른다. 총에 맞아 죽는다. 다시 시작한다.</div>		
<div>Boy 소년 소녀 Girl</div>	<div>Nothing...nothing... I am just nothing... 없음... 없음... 내 존재는 없음이야... 있음. 내가 널 알아보잖아. You are. I recognize you that are here.</div>		

<div>작가 고순덕</div>	<div>Writer Ko Sun-duck</div>	<div>작가 에반 플러이시</div>	<div>Writer Evān Plācny</div>
<div>2014년 워크샵 때, 한영청소년들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열려있었는지 기억난다. 그들 사이에 바리케이트는 없었다. 그들은 이미 만날 준비가 돼 있었고, 이미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말이 제대로 안 통하는데도 모든 걸 같이 즐겼다. 가슴이 빠근했다. 어쩌면 지영과 윌도 그런 걸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미 친구였고 서로의 삶에 가랑비 맞듯 젖어두고 있었는데 작가들이 이제서야 서로를 만나게 해주다니... 둘이 팔짱을 끼고 앉아 찌웃 혀를 차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고, 준비되는 것들이 있다. 지영과 윌 이야기가 따로 묶여있던 지난 4년 동안, 에반과 나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며 조금씩 경계를 허물고 있었는지 모른다. 각자 작가로서 갖는 경계, 다른 문화권에 사는 사람으로서 갖는 경계, 성격적 차이에서 오는 경계... 이런 경계들을 넘어서는 과정이 때론 흥미롭기도 하고, 때론 불편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번 작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경계를, 심지어 이성적인 논리까지도 과감히 뛰어넘은 것 같다. 그러니 묻지 마시라. 왜 이렇게 썼냐고. 어떻게 지영과 윌이 서로를 감지하냐고. 고백하자면, <오렌지 북극곰>을 작업하다가 중간에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적이 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계속 가다가는 얼음이 깨져서 폭 빠져죽을 것만 같던 순간... 다행히 얼음은 깨지지 않았고, 나는 <오렌지 북극곰>의 공동작가로 살아남았다. 날 끝까지 버티게 해준 이들 - 늘 호탕한 웃음소리로 모든 경계를 화통하게 날려버리는 김미선 피디 님, 사방에서 주는 압력이 보통이 아닌데도 늘 같은 자리에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피터 연출님, 그리고 공동작가로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에반과 <오렌지 북극곰>을 통해 만났던 모든 청소년들, 배우들, 스태프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맙수다양~</div>	<div>During our Korea-England Youth Exchange workshop in 2014, the young participants from both Korea and the UK impressed me with the way they opened their hearts to each other. There was no barrier whatsoever between them. They met as though they were old friends rediscovering the bonds that bound them together. Language was no longer a barrier. They savored all that was happening around them. I was deeply moved and tears welled in my eyes. It is possible that Jiyoung and Will might have waited for a moment like that. They had been good friends for quite a while, and their lives were intertwined like the warp and weft of a tapestry. We could say this was long overdue. Evan and I should have let them meet sooner.... Who knows that they may be clicking their tongues in disapproval as they fold their arms. However, there are things that need time to be perceived and be prepared before they can be actualized. During these past four years when the stories of Jiyoung and Will were not yet united, I may say, Evan and I were cautiously exploring each other and tearing down boundaries little by little. The boundaries we had as writers, as citizens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s people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the process of overcoming boundaries was sometimes interesting, sometimes unsettling, but we managed to go beyond all those boundaries to a point beyond logic. So please don't ask why it was written this way, how Jiyoung and Will are able to sense each other. Frankly speaking, let me confess, there once was a time when I got lost while working on The Orange Polar Bear. I had already reached the point of no return and felt like I would drown beneath the broken ice if I continued to proceed... Luckily for me, the ice did not break, and I survived as a collaborator of The Orange Polar Be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 you to the people that gave me strength to go all the way... to the Production Director Kim Misun, who dissolves each and every boundary there is with laughter, to the Director Peter, who manages to send out positive energy even while under tremendous pressure from all directions, to Evan, the co-playwright, who made special experiences possible for me, and to each and every youth participant, actor and actress, and all the staff of The Orange Polar Bear. Thank you all! Komapsudayang~</div>	<div>지금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이 곧 끝날 것 같고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암울하게만 비춰집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어른들이 결정하고 환경, 안전, 정치, 경제적인 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낙관하며 현재에 집중할 수 있나요? <오렌지 북극곰>은 한국의 고순덕 작가와 공동으로 작업하며 나오게 된 작품입니다. 순덕 작가와 저는 버밍엄과 서울의 십대들과 함께 작업하며 십대들이 어떤 것에 열정을 쏟고 또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세계의 십대들에 대한 연극을 만들 수 있을까하는 예술적 도발에서 시작되었고, 실제로 두 나라의 배우들이 두 개의 언어로 펼치는 연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거친 물살 위에서 길을 찾을 때 우리가 탄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미선, 주디, 테사, 특히 피터를 비롯하여 한영씨어터, 국립극단, 버밍엄 레퍼토리 씨어터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와 함께 차가운 물로 뛰어들어 이번 여정에서 저의 소중한 구명조끼가 되어준 순덕 작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div>	<div>The world feels like it's ending, the future bleak – if you go by the news at the moment. How do you deal with this as a young person? When adults are making decisions which will effect your future, and you're constantly being told things are getting worse – for the environment, for safety, politically, financially – how do you remain optimistic and engage with the present? Orange Polar Bear came out of collaborating with Korean playwright Sun Duck Ko; we worked with teenagers both in the Birmingham and in Seoul to find out about their passions and their worries. We also began and stuck with the artistic provocation of could we write a play about teens on two sides of the glob connecting, but making a play that also did just that: being told in two languages with a mixed cast. It's been a challenge and a joy. Thank you to everyone at Hanyong, NTCK and Birmingham REP – Misun, Judy, Tessa, and especially Peter, for continuing to steer the ship even when waters were rocky and we got a bit lost along the way. And a huge thank you to Sun Duck, for jumping into the icy water with me. You've been my life jacket on this journey.</div> <div>캐나다 출신 영국 극작가</div> <div>연극 Mother of Him, Keepy Uppy (UK tour), Jekyll & Hyde (NYT/West End), Consensual (NYT, West End), Pronoun (National Theatre Connections), WiLd! (UK tour), Scarberia (YPT, Toronto & York Theatre Royal, UK), Holloway Jones (Synergy/Unicorn), Banana Boys (Hampstead), Girls Like That (Birmingham REP, West Yorkshire Playhouse & Plymouth Drum; Synergy/Unicorn & Tour).</div> <div>수상 <Mother of Him> The Writers' Guild Award of Great Britain The Brian Way Award, RBC National Playwriting Award at the Tarragon Theatre in Toronto, The King's Cross Award in the UK, the Samuel French Canadian Play Award in the USA. <그 외 작품> Jugend Theatre Preis Baden-Wurttemberg (Germany), Scenic Youth prize (France), Brian Way Award, Royal Society of Literature's Literature Matters Award and Writers' Guild Award (all UK).</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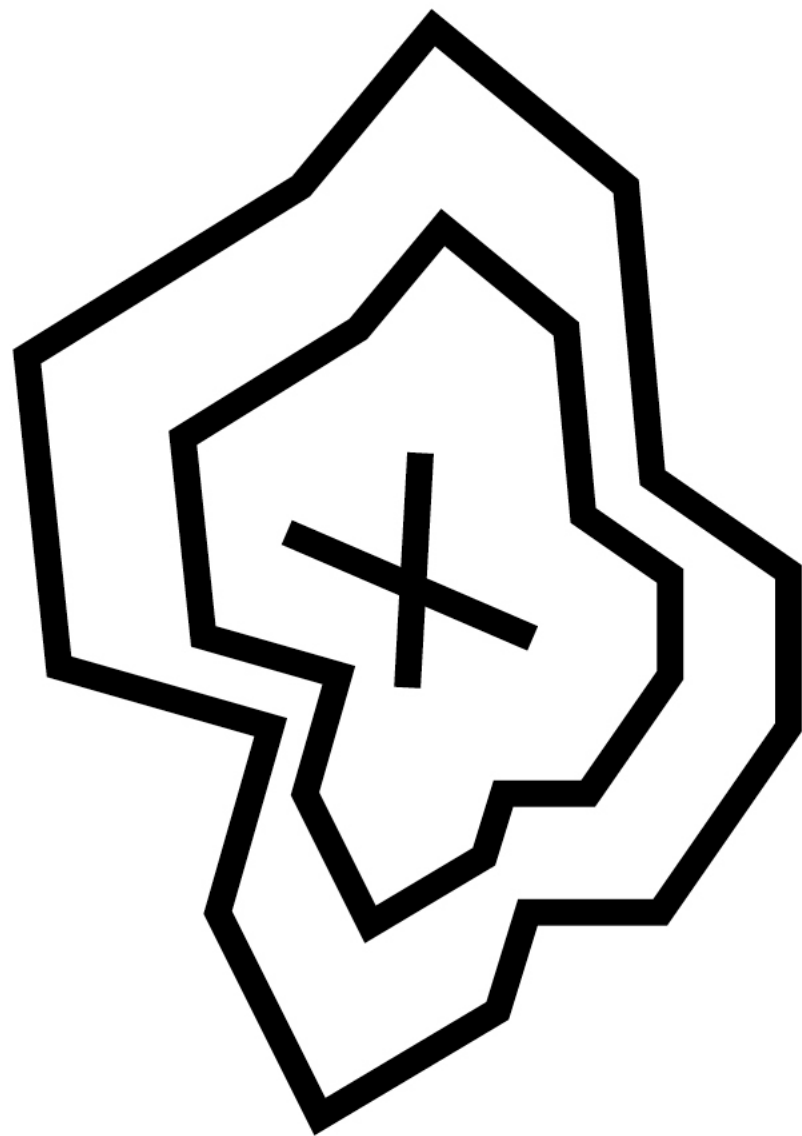
2014년 에반과 저는 서울에 왔고 고순덕 작가와 국립극단팀과 함께 한국의 침대들과 작업했습니다. 침대들에게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고 드라마 게임과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영국 버밍엄으로 돌아온 뒤 영국에 있는 침대들과도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 영국 침대들과 한국 침대들이 보여주는 생각이 얼마나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어 참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기회였습니다. 이때 진행한 몇 가지 세션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들이 이후 오<오렌지 북극곰> 이야기의 일부로 발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진행된 워크숍과 토론, 리서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때 오고간 내용의 양이 방대해서 제가 전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작품을 만들고 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고 공유했던 즐거움과 열정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오렌지 북극곰>이라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두 명의 침대가 자신이 고립된 것 같다는 외로움과 보이지 않는 존재 같다고 여기는 감정을 공통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로 묶이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는 예술가들이 함께 풍부한 드라마를 만들고, 작업하고, 또 어울린 협업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협업이 우리를 서로 다른 객체로 나누기보단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작품 안에서 오래도록 지속될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한국의 관객과 영국의 관객이 똑같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연극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월과 지영의 세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나요? 또 여러분은 월과 지영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의 대답을 들려주세요.

주요작 <Heds or Tails> <Roy> <Walking Shadow>
<Nori> <The Bridge> <Looking for Yoghurt> 외
영국 버밍엄 시립대학교 교수 및 프로그램 감독
(응용연극 Applied Theatre)
Hanyong Theatre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아동청소년극전공 방문교수[1999-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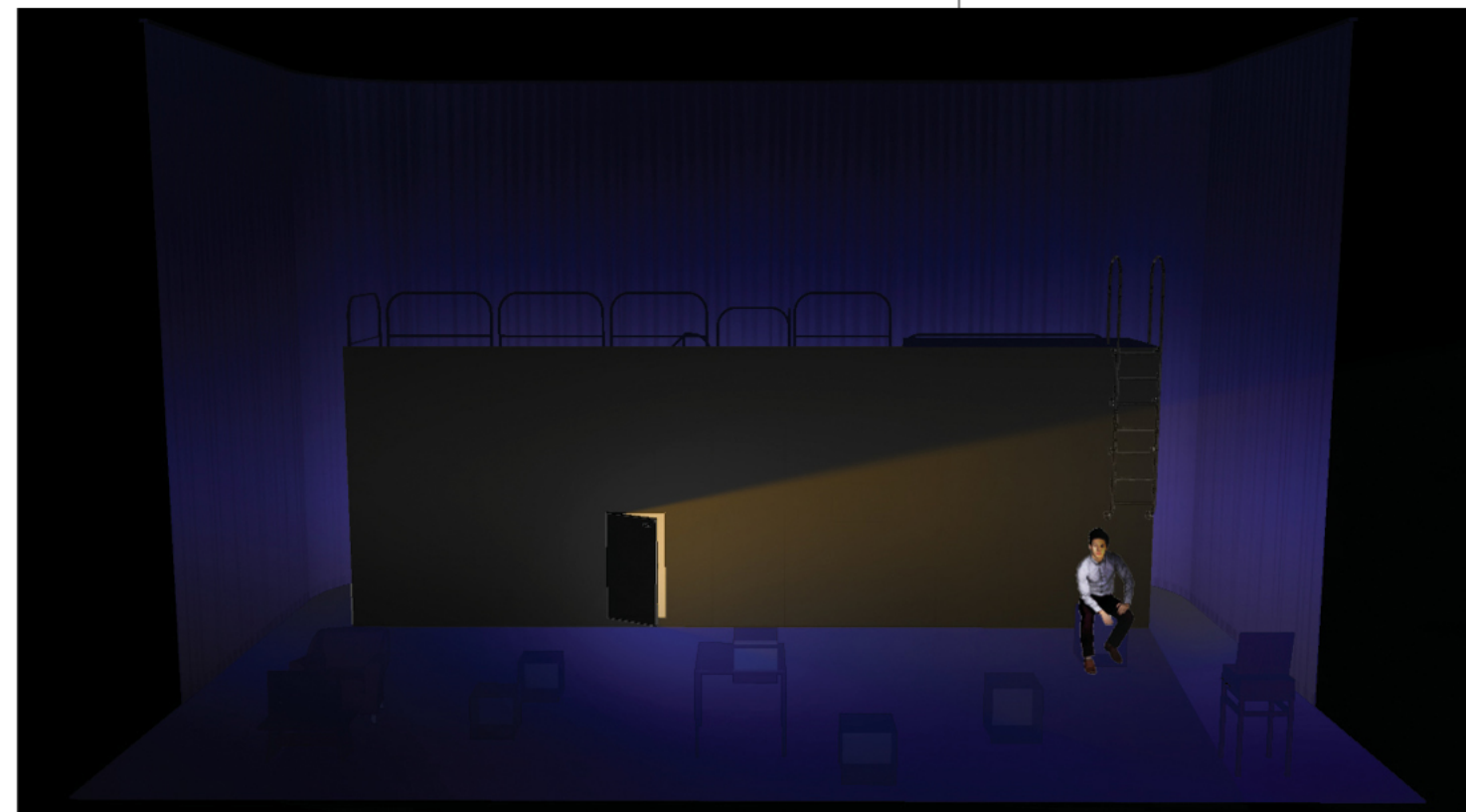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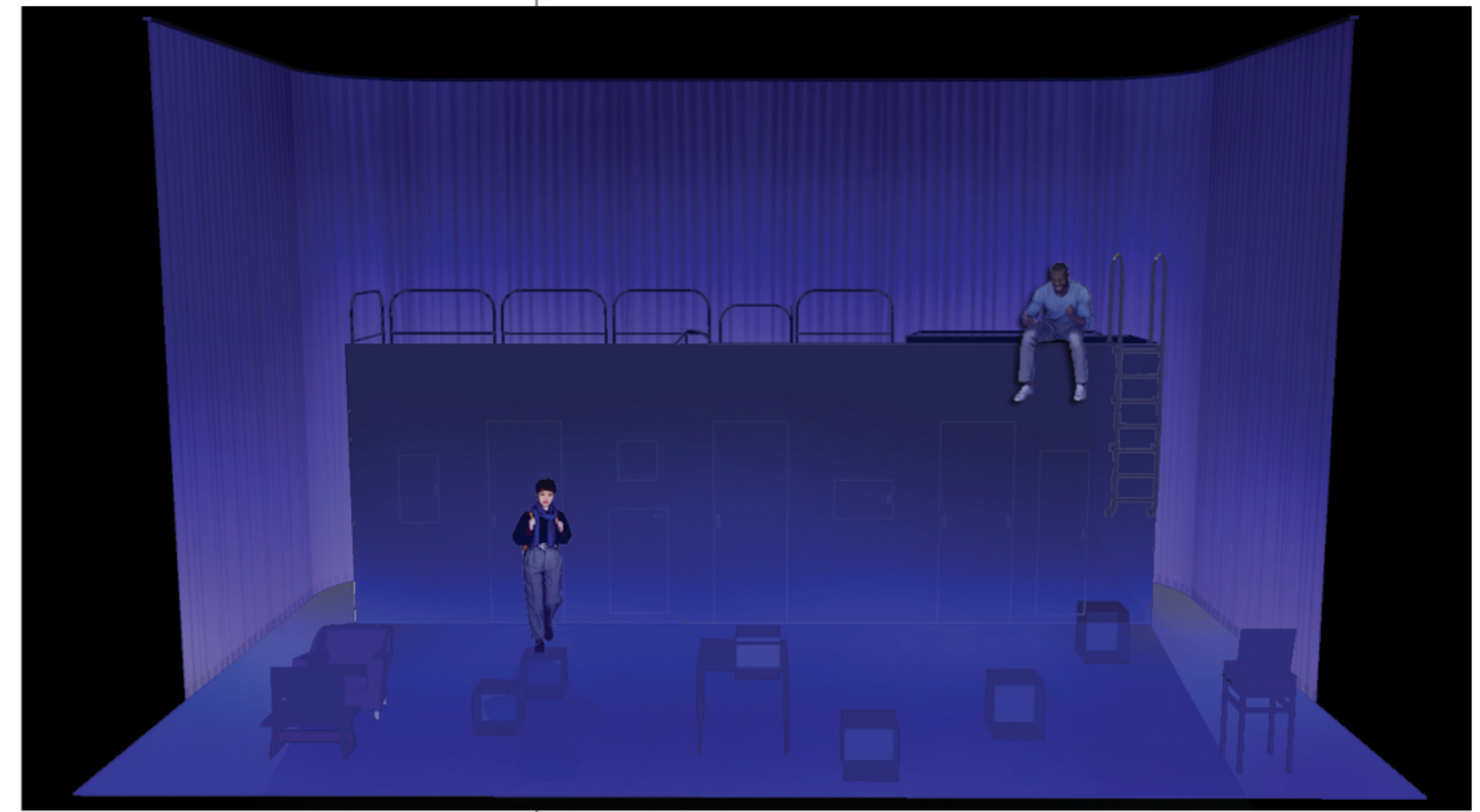


In 2014 I came to Seoul with the writer Evan, and along with Sun Duck and the team from NTCK we worked with a group of teenagers. We asked them questions, we did drama games and exercises, and we collected ideas. Then back in Birmingham UK we did the same with another similar group. It was amazing how similar, and how different their answers were. It is the ideas that came from these few sessions that have grown into Orange Polar Bear. But that is only part of the story.

So many people have helped with the workshops, the discussions, and the research for this project, that it is hard to remember them all. But all through the process of making and directing the play, what I do remember clearly is the enjoyment, the passion and the excitement that we have shared.

On one level this play is a story of two teenagers, in separate countries, united by their sense of isolation and invisibility. But it is also the story of a fascinating and rich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creating drama together, working together, playing together, and proving that there is more that unites us than divides us. We have all made friendships that will last well belong this production.

While that has been happening, we have tried to make a play that will be understood and enjoyed equally by audiences in Korea and England, and we look forward to hearing what you think about it. Are you living in the same world as Will and Jiyoung? Do you feel the same way they do about things? Please let us k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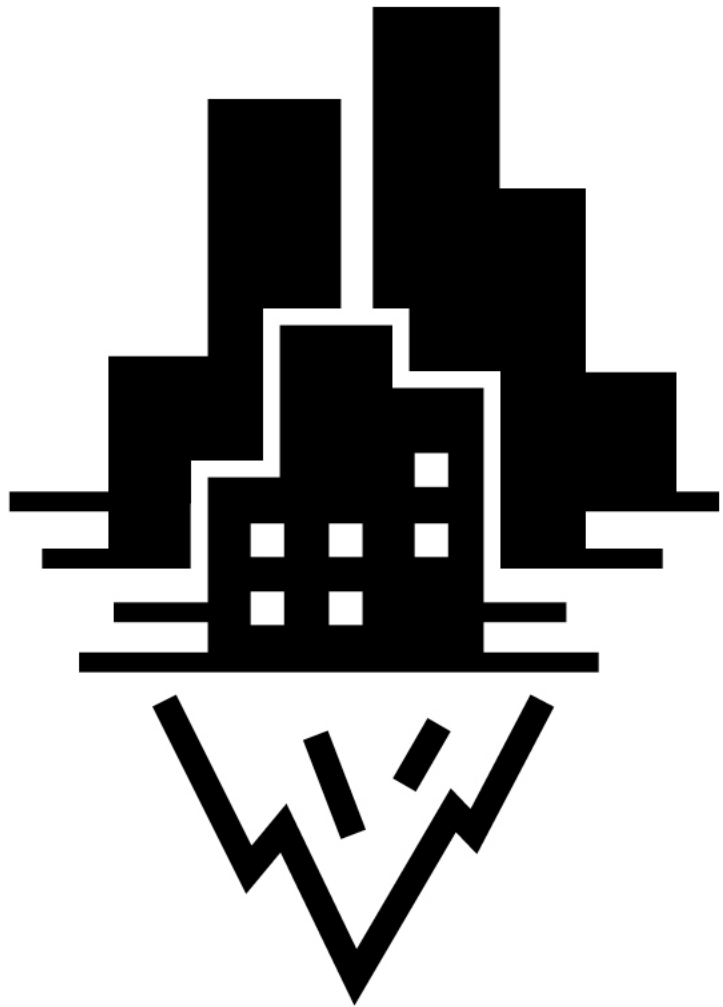
아트 디렉터
여신동

Art Director
Yeo Shin-dong

무대미술가

이러한 나쁜 습관을 바꾸고, 기꺼이 <오렌지 북극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김성제



‘BILINGUAL’,‘MULTILINGUAL’, ‘다름’, ‘차이’, ‘낯선’, ‘모름’, ‘두려움’, ‘여정’, ‘2014, 2016, 2018’, ‘변화’, ‘표류’, ‘도착’, ‘종착지’....‘오렌지 북극곰(ORANGE POLAR BEAR)’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입니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오렌지 북극곰>은 한국과 영국에서의 공연에 앞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극복해야 할 도전이 많았습니다.

<오렌지 북극곰>의 희곡은 경계 없는 시공간 속에서 현실과 비현실을 넘나드는 다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있으며, 10대의 혼란스러운 내면과 사회에 대한 낯선 관점을 문학적 은유와 상징성이 도드라지는 대사를 통해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제작진들은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 각기 자기만의 예술관과 익숙한 작업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긴 협상의 시간을 견뎌내며 과감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양국의 배우들 역시 서로에게 생경한 언어를 몸의 감각으로 읽어내고, 이질적인 문화의 낯섦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세대와 세대의 차이를 넘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청소년극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렌지 북극곰>의 배우들과 제작진이 보여준 일련의 과정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이의 간극을 메꿔가는 노력은 국립극단 청소년극이 추구하는 바와 어떠한 지점에서 맞닿아 있으며, 그러한 과정이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년, 무모한 시작이었을 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운 여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2014년부터 시작된 <오렌지 북극곰>의 긴 항해는 이제 돛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긴 시간동안 함께 해준 피터 윈 윌슨 연출과 공동 작가인 고순덕, 에반 플레이시 그리고 여신동 아트 디렉터를 포함한 모든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어의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영국과 한국의 배우들, 언제나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등대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청소년17인’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깊은 애정으로 국립극단 청소년극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보내주시는 관객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큰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

리뷰			

너와 나, 보통의 존재

글. 장경진 (공연칼럼니스트)

학년이 바뀌면 자연스레 기억에서 지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렌지 북극곰>의 소녀와 소년이 그렇다. 이들은 극이 한참 진행될 때까지 ‘소녀/girl’과 ‘소년/boy’로만 불린다. 둘은 비슷비슷하게 네모반듯한 아파트에 산다. 투명 인간처럼 학교를 다니지만, 왕따는 아니다. 소녀와 소년이 처한, 한국의 이혼 가정과 영국의 이민자 가정도 이제 더 이상 주류 밖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출하게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특별하게 못하는 것도 없는 보통의 존재.

평범하다고 해서 이들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다. 2살 때부터 겪은 엄마·아빠의 부재는 이들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소녀가 갖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아빠를 향한 미움으로 이어지고, 소년은 아빠의 부재로 타국에서 가장이 된 엄마에게 복잡한 감정을 갖는다. 헤어진 엄마를 만나고 싶어도 용기가 없는 소녀와 혼자 남을 엄마가 걱정되면서도 훌쩍 떠나고 싶은 소년. 게다가 소녀는 매일 아침 등교 전, ‘돼지털’이라 놀림 받지 않기 위해 40분씩 머리카락을 손질한다. 소년 역시 별로 잘하지 못하는 온라인 게임을 잘하는 척 허세 부린다. 외모 관리와 게임은 소녀와 소년이 중간 지대에 남도록 돕는다.

소녀와 소년의 이름은 지영과 윌리엄이다. 이들이 겪는 상황은 익숙해서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한다. 가정불화나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 뒤뜰된 교우 관계와 오르지 않는 성적 같은 고민은 청소년기를 통과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쉽게 판단되기도 한다. 지영과 윌리엄은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이 아닌, 양식화된 하나의 덩어리로 판단될 위험도 당연히 높다. 이들이 평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고민은 같은 무게로 중요한 법이다. <오렌지 북극곰>은 평범하기에 외면되어온 이들의 혼란을 최대한 예민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포착해내는 데 집중한다. 연극이 선택한 언어는 독백이다. 작품의 70%에 달하는 독백은 타인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영과 윌리엄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유일한 창구다. 독백 안에서 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감추거나 꾸미지 않는다. 이민자를 대하는 영국인들의 모순적인 태도와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외모에 맞춰야만 하는 여성의 삶도 독백에 있다. 독백은 개인이 가정과 학교, 국가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다. 관객은 지영과 윌리엄의 일기 같은 독백을 통해 이들의 감정에 닿는다.

평범해서 자칫 두루뭇술할 수 있었던 캐릭터에 힘이 생긴 것은 2014년부터 이어진 오랜 프리프로덕션의 결과다. 지영과 윌리엄은 한국과 영국의 두 작가 고순덕과 에반 플레이시가 두 나라의 청소년을 직접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했다. <오렌지 북극곰>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띄지 않아 언제나 혼자였던 이들의 소외감에 주목한다. 이 주제는 아이들이 실제 교실에서 느낀 ‘투명’이라는 이미지로부터 도출됐고, 15세의 아이들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공간과 물건이 작품 곳곳에 스며들었다. 느리지만 세심하게 10대와 연결되려는 노력과 태도가 <오렌지 북극곰> 그 자체인 셈이다.

성별도 인종도 다른 지영과 윌리엄이 서로를 알아보듯, 윌리엄은 본인의 세계에서 또 다른 지영을 찾아낸다. 언니의 죽음 이후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사라. 게임과 책의 세계에서 위안을 찾는 윌리엄과 사라는 서로의 빈 곳을 발견하고, 윌리엄은 비로소 내밀한 감정을 독백이 아닌 대화를 통해 뽐낸다. 지영은 미묘한 변화를 알아챈 할머니의 도움으로 13년간 그리워하던 엄마의 세상으로 향한다. 지영과 윌리엄이 혼란을 공유하는 누군가를 찾은 후 얻는 것은 용기다. 그것은 상처 받은 친구와 함께 싸울 ‘밤심’이기도 하고, 죽음을 결심한 친구를

위해 쓰는 SOS 편지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침잠해온 이들의 변화가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렌지 북극곰>은 친구의 믿음과 가족의 지지 위에서 스스로 벽을 부수는 그 순간에 집중하며, 한 뼘 자라는 이들을 응원한다.

이번 2018년 공연에는 영국 배우들이 참여해 4년 전 국립극단이 세운 ‘글로컬’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졌다. 윌리엄이 이민자로서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김의 배우를 통해 자연스레 구현된다. 한국어와 영어의 뒤섞임은 언어를 넘어 연결되는 공통의 감정이 있음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다름을 확인하고, 같은 감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21세기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지영의 씨실과 윌리엄의 날실이 교차하며 그려내는 그림은 분명 평범할 것이다. 대신 <오렌지 북극곰>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 누군가의 눈에 평범해 보이는 그 결과물 역시 나를 찾아가는 치열한 과정 끝에 탄생한 것임을.

국립극단은 2011년 <소년이 그랬다>를 시작으로 다양한 환경과 위치에 놓인 청소년들을 무대에 담아왔다. 아주 사소하리만치 작아 보이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중요한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사랑과 우정, 죽음과 용서 같은 거대한 주제도 아이들이 겪어내는 일상적인 상황과 언어의 힘으로 객석에 전달됐다. 가장 예민한 시기를 담은 청소년극이 청소년만을 위한 연극이 아닌 것은 당연했다. 성인 관객은 자신이 지나왔던 시간에 공감하거나 여전히 지금을 괴롭히는 감정의 실체를 오히려 청소년극을 통해 확인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가장 평범한 사람이 겪는 가장 평범한 고민이 가장 극적인 연극으로 소개되는 순간에까지 왔다. 가장 보통의 존재는 그렇게 삶의 주인이 된다.

한국-영국 청소년 프로젝트 2014-2018

중 프로젝트 Teenager Project / 시차작업 Jet lag / 카오스 Chaos / 노바디 Nobody

그리고 <오렌지 북극곰>이 되기까지”

2014

만남 / 키워드 / 아이덴티티/
캐릭터탄생 / 새로운

3월 [한] 사전 리서치와 한국-영국
화상회의

4월 [한] 청소년예술가탐색전 1차
워크숍

한국 청소년 13명, 한-영 예술가

6월 [영] 영국에서의 2차 워크숍

영국 청소년 14명, 한-영 예술가

8월 [한] 다시 한국에서 3차 워크숍 &
쇼케이스

한국과 영국 청소년 15명, 그리고
한-영 예술가, 그들이 만든 이야기
<15세, 지영과 윌리엄>

9월~12월 [한-영] 한국과 영국 작가,
각각의 1차 대본 집필

“지영, 혼자라서 짜증
로고, 혼자라서 조금은
쓸쓸한... 책상이 무뎌서
처럼 날아올라 아무도
없는 우주에 머물러
있을...” ‘작가 고순덕’



2015

교차 / 주제 / 독백의재해석 /
인내심

1월 [한] 한국 작가 고순덕 2차 대본
완성

9월 [한-영] 한영 공동공연 협의

10월 [영] 영국 작가 에반 플레이시
2차 대본 완성

11월 [한-영] 한국 작가의 영국 방문,
그리고 작가 회의

12월 [한-영] 한-영 공동대본 완성

“윌리엄, 레이다 망
에 걸리지 않는 표정
범함한 아이. 내새나는
이상한 애보다 더 나쁜
것은 특별한 문자가
없다는 것이다.” ‘작가
에반 플레이시’



2016

변화/표현/제3의언어/사랑과전쟁/첫번째정거장

3월 [한] 캐릭터 리서치를 위한 청소년 워크숍

4월 [한] 대본 개발을 위한 배우 워크숍 | 한국
참가자와 영국 연출

7월 [영] 버밍엄 'On the Edge Festival' 한국어-영어
양국 언어 동시공연으로 시연(30분)

8월 [한] 공연 연습 시작

청소년 참가단 워크숍 진행

9월 <오렌지 북극곰> 한국어 공연

9.1-11 /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오렌지와 북극곰이 이
질적 조합. 그것은 청
소년의 내적심리만큼
극과 극이지 않나. 빙
하 같은 세상에서 차
열하게 살아가는 청소
년을 그리고 싶었다.”
‘공동연출 여신동’

“두 사람의 관계가 특
이하다. 두 다 세상에
만약까지 못하기 때문
에 특이한 관계가 만
들어진다.” ‘공동연출
피터 윌슨’



2017

다시 시작

6월 [한-영] 한국 작가의 영국 방문, 그리고 작가
회의

12월 [한-영] <오렌지 북극곰> Bilingual 대본 1차
완성



2018

두번째정거장 # 오디세이의 종착지

5월 [한-영] 대본개발워크숍 진행

7월 [한-영] <오렌지 북극곰> Bilingual
연습대본 완성

8월 [한] <오렌지 북극곰> Bilingual

버전 공연 연습

한국배우와 영국배우가 처음으로
만남

10월 [한] 한국공연 10.11-21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11월 [영] 영국공연 11.1-10

더 도어, 버밍엄레퍼토리씨어터





오렌지와 복극곰과 청소년 17인

예술교육:

김미정, 김준호, 최은정

<청소년 17인>

강이랑, 김새얼, 김정은, 김주리,
김지원, 김현원, 박채은, 송가현,
신성지, 윤광석, 정다운, 주혜민,
황웅비, 허경무

오렌지와 복극곰? 서로 전혀
다르지만, 웬지 모르게 깊이
연결된 것 같은 알 수 없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을 탐색하기
위해,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우리들, <오렌지 복극곰>을
또한 청소년극(!)을 발견하기
위해, 청소년 17인이 레이터를
켜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이
모험에서 우리가 감지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두둥, 커밍쑤!

청소년 17인 예술교육 활동

1차시.

9월 7일

리서치 워크숍1:

<오렌지 복극곰> 프롤로그 탐색

2차시.

9월 14일

리서치 워크숍2:

한국교실의 청소년

3차시.

9월 19일

오픈리허설 참가 및 관람

피드백

4차시.

9월 21일

리서치 워크숍3:

리허설 관람 경험의 탐색

5차시.

10월 5일

주제 탐색 워크숍

6차시.

10월 12일

공연관람 및 토론

7차시.

10월 13일

이야기관 참가

8차시.

10월 19일


전체 활동 반추하기

리서치 워크숍1 : <오렌지 복극곰> 프롤로그 탐색
프롤로그에서 떠오른 이미지 찾기와 독백하기 중에서

소년은 소리를 차단했다.
소녀는 일찍 어른이 됐다.
소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느낀다.
소녀는 왜 이 세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소년은 얼음에 휩쓸리는 사람.
소녀는 얼음을 깨부수는 사람.
소년은 마음속에 불이 타고
있다.
소녀는 마음속에 타고 있는
불을 끄는 방법을 안다.



리서치 워크숍 2: 한국교실의 청소년					
“청소년 친구들 중에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을 주로 뭐라고 하죠?”	썸인싸 	“그러면 모범생 이런 친구들은 뭐라고 불려요? 대본에선 범생이라 그러거든요.” “범생이요? 카하하하하하!!!!” “..... 그럼?”	또래 친구들을 관찰해오고 장면화하는 활동속에서 교실 안 일상을 들여다보는 시간.		
“인싸요, 트렌드에 민감하고 소통 잘하고 대인관계 좋은 분위기 메이커.”	핵인싸 	“공부충 혹은 내신충이요!”	격한 공감과 일상의 발견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들만의 호흥과 신체 표현들! 그렇게 탐색한 바들을 ‘한국교실의 청소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재구성해본다.		
“핵인싸”					
“난 핵인싸 안 쓰고 썸인싸 쓰는데?”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슈퍼인싸 	 			

2018 <오렌지 북극곰> 오픈리허설의 기록					
진행: 김미정 교육감독	진행순서	청소년 17인의 공감과 제안	공연팀의 질문		
9월19일 수요일, 예전에 비해 훨씬 이른 시기에 진행된 오픈리허설이었다.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다른 시공간, 다른 언어가 어떻게 관객과 소통될 수 있을지 이른 점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배우들이 한국 청소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경험이 중요하게 요구됐다. 공연팀과 만난 자리에서 ‘청소년 17인’이 직접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친밀감 형성을 위한 위밍업 활동을 주도하여 전개하였다. 그런 다음, 청소년들의 장면 발표와 공연팀의 장면 시연, 그리고 함께 나눈 이야기.	1. 몸으로 만나는 청소년과 공연팀 2. 청소년 17인 ‘한국교실의 청소년’ 발표 3. 공연팀 장면 시연: 프롤로그부터 7장까지 4. 관람 피드백 및 질의응답	윌리엄과 엄마의 장면이 정말 공감됐어요. 사실 오늘 제가 엄마에게 하고 온 말이있거든요. “나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윌리엄이 말을 하면 지영이 이야기하는 것이, 윌리엄의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것임에도 지영의 상황과도 연결이 되어서 신기했어요. 저희가 제안을 드렸지만, 극에서 나온 요즘 유행어들이 어색하게 들렸어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말이긴 하지만 어쩐지 불편하게 들어서 연극에서 쓸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조심해서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배우 영국 배우들이 어떻게 해야 한국관객들이 공연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영어 대사를 간단하게 바꾸면...? (일동 웃음) - 언어의 장벽이 있는 한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 바디랭귀지나 소품을 더 활용하면 어떨까요? 연출가 만약 자막을 쓰게 된다면, 이해하는데 혼란을 주거나 혹은 돕거나 할 수 있을까요? - 계속 자막을 보게 돼서 피곤할 것 같아요. - 모든 대사를 나열하는 것 보다는, 장면에서 키워드가 되는 것을 자막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리서치 워크숍 3: 오픈리허설 관람 경험의 탐색					
오픈리허설을 보고 떠오른 생각과 질문들	지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오렌지 북극곰>과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극’	“TV를 볼 때와는 다르게 연극을 볼 땐 직접 교감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영이 즐겨듣는 음악은? 윌리엄이 즐겨듣는 음악은?” “지영아,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나 같아도 결혼 안하겠다고 한 거야?” “작가는 왜 윌리엄에게 이민자의 삶을 입혔을까?” “배우들의 연기가 청소년을 따라하려는 것이 아닌, 공감하려고 한 것 같았다.” “다른 공간, 다른 상황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짜 청소년 같았어요. (어떤 점이?) 그냥 모든 게 다요. 숨 쉬는 거 하나까지 청소년! 지영이의 모습이 제 중학생 생활이랑 비슷해서 정말 공감됐어요. 특히 친구들 사진을 찍어줄 때요. 그 기분을 전 알 것 같거든요. 그런 학교생활과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를요. - 중학교 때는 친구 땀에 힘들고 고등학교 때는 개인 땀에 힘들어(격한 공감!)	“지금까지 봐왔던 청소년극은 대부분 큰 사건을 다루는데, <오렌지 북극곰>은 지영과 아빠와의 관계, 학교 친구 태희와의 관계 등을 다루잖아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누구나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을요. 윌리엄과 지영이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을 연극으로 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화나 TV는 나와 분리되어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연극은 함께 공존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는 카메라를 통한 감독의 시선만을 보게 되지만, 연극은 극장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는 온전히 우리의 몫이죠.”	오픈리허설에 참여해주신 분들 성인 참여자 / 김은빈(부천 양지초), 극단적낭만인 청소년 17인 / 강이랑, 김세얼, 김정은, 김주리, 김지원, 김현원, 박채은, 송가현, 정다운, 주혜민, 황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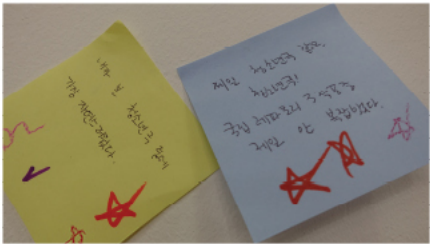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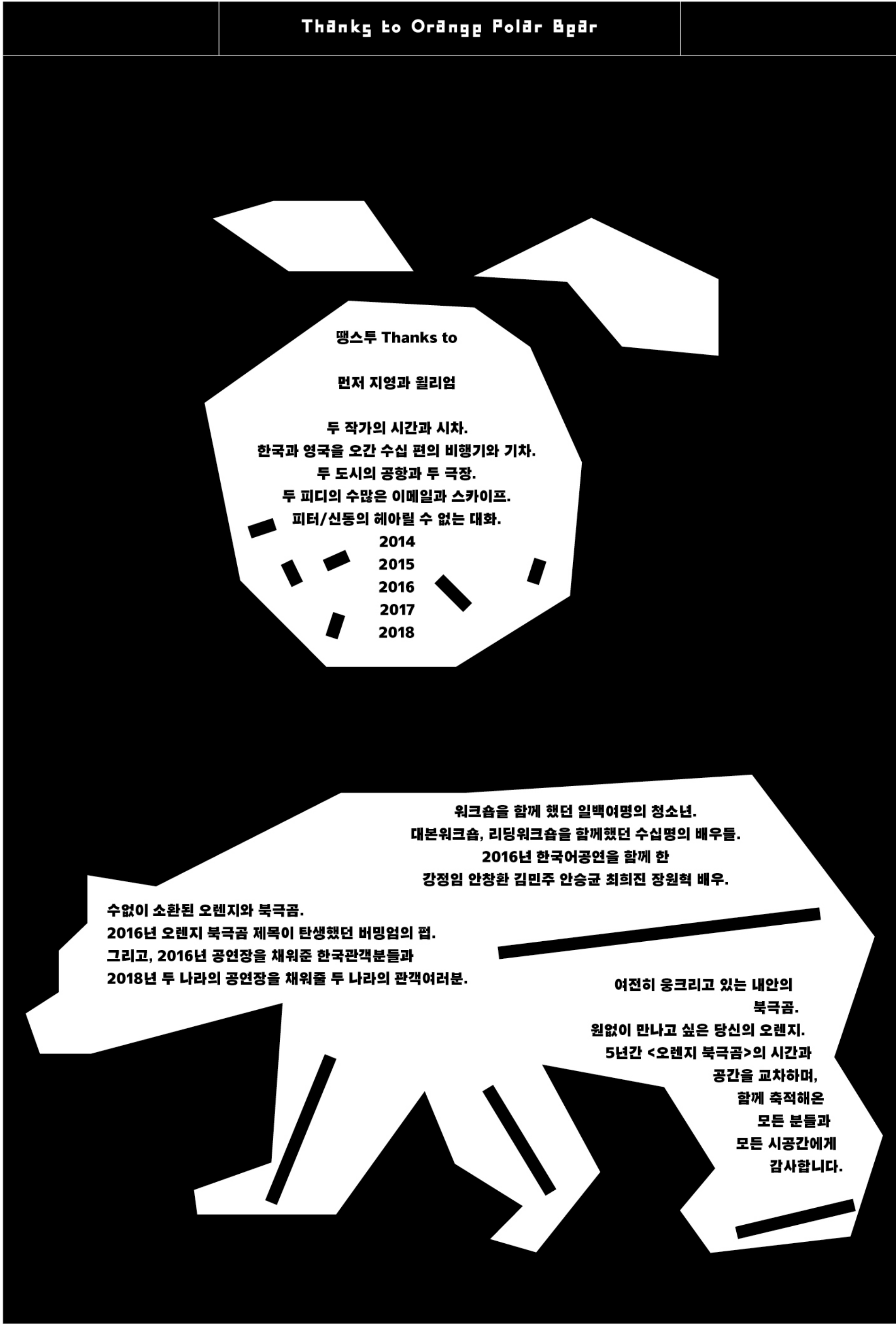


사진. 장성용,정원근



출연 김민주, 라자크 쿠코이 강정임, 타히라 샤리프 홍아론, 마이클 코유	음향시스템, 임유정 영상,음향오퍼, 김석기 조명오퍼, 손민영 자막오퍼, 민규빈 의상진행, 최유리 무대팀, 홍준기 조명감독, 김병희, 김대현, 김병주, 박성훈	영국 공동 제작, 버밍엄레퍼토리씨어터	Cast Kim Min-Ju, Rasaq Kukoyi Kang Cheong-im, Tahirah Sharif Hong Aa-ron, Michael Kodwiw	Sound System, Lim You-jung Projection&Sound Operator. Kim Seok-gi Lighting Operator. Son Min- young Surttitle Operator. Min Gyu-bin Costume Crew, Choi Yu-ri Stage Crew, Hong Jun-gi Lighting Team, Kim Byoung-hee, Kim Dae-hyun, Kim Byeung-joo, Park Seong-hoon	UK co-production Birmingham Repertory Theatre
스태프 작, 고순덕, 에반 플레이시 연출, 피터 원 윌슨	무대제작, 온스테이지 (대표 김준성) 의상제작, 인유어더어 (대표 신은혜) 소품제작, 대우인테리어 (대표 권태성)	컴퍼니매니저, 루스 모건 무대조감독, 루스 오브라이언 제작감독, 토마스 라이트 행정감독, 스튜어트 로저스 예술감독, 록산나 실버트	Creative Staff Playwright, Ko Sun-duck, Evan Placey Director, Peter Wynne-Willson	Set Production, Onstage Costume Production, In your door Props Production, Daewoo Interior	Production Manager, Tomas Wright Company Manager, Ruth Morgan Assistant Stage Manager, Ruth O'Brien Executive Director, Stuart Rogers Artistic Director, Roxanna Silbert
번역, 유혜련 드라마터그, 테사 워커	그래픽 디자인, 워크룸 음용 디자인, 라프트 포스터 사진, 이강혁 홍보/연습/공연 사진, 스튜디오그린비 장성용, 정원균 홍보영상, 오슬로 프로젝트 기록영상, 미니멀랩 홍보물 인쇄, 인타임	한영씨어터	Translation, Ryoo Hyeryun Dramaturg, Tessa Walker	Graphic Design, Workroom Applied Design, RAFT Photography of Poster, Lee Kang- hyuk Photography of Press/Rehearsal/ Performance, Studio Greenbee Jang Sung-yong, Jung Won-gyun Spot Design, Oslo Project Film Maker, Minimallab Production Poster, Leaflet Printing, Intime	Hanyong Theatre
아트디렉터, 어신동 조명, 사이먼 본드 음악, 강영규 사운드, 임서진 음지임, 이윤정 영상, 정병목 영상기술, 윤민철 의상, 나누리, 케이 윌튼 소품, 권민희 교육감독, 김미정 예술교육, 김준호, 최은정 조연출, 문세미 조연출보, 권은지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홍보, 오지수, 이정민 마케팅,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이승아, 김효진, 소여진 티켓, 김보배, 이현아, 김보전, 김보연 매표안내원, 김인혜, 허수현, 이은지, 이준원, 김다예 하우스 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안내원, 이시라, 권묘정, 전준형, 김성주, 김진은, 박만수, 이지은, 이혜조, 정진영, 김소희, 김윤주, 박재현, 오민지, 정이현	프로듀서, 주디 오웬 프로듀서보, 이 율 예술감독, 피터 원 윌슨	Art Director, Yeo Shin-dong Lighting Designer, Simon Bond Composer, Jang Yeong-gyu Sound Designer, Lim Seo-jin Movement Director, Lee Yun- jung Projection, Jung Byung-mok Projection Technical Director, Yun Min-choel Costume, Na Nuri, Kay Wilton Props Designer, Kwon Min-hee Education Director, Kim Mi- jeong Art-Education, Kim Jun-ho, Choi Eun-jeong Assistant Director, Moon Sae-mi Assistant Director's assistant, Kwon Eun-ji	Director of PR & Marketing, Jung Yong-sung Public Relations, Oh Ji-su, Lee Jeong-min Marketing, Park Bo-young, Choi Yoon-young, Han Na-rae, Kim Tae-eun, Lee Da-young, Lee Song-e, Kim Hyo-jin, So Yeo-jin Ticket, Kim Bo-bae, Lee Hyun- ah, Kim Bo-jeon, Kim Bo-yeon Ticket Usher, Kim In-hye, Heo Su-ryeon, Lee Eun-ji, Lee Joon- won, Kim Da-ae House Manager, Kim Na-rae, Kim Soo-hyun House Usher, Lee Si-ra, Kwon Myo-jeong, Jeon Jun-hyeong, Kim Seong-joo, Gim Jin-eun, Park Man-soo, Lee Ji-eun, Lee Hea-jo, Jung Jin-young, Kim So- hee, Kim Yoon-joo, Park Chae- hyeon, O Min-ji, Jung Yi-hyun	Producer, Judy Owen Assistant Producer, Yool Lee Director, Peter Wynne-Willson
통역, 홍수현 무대감독, 박수예 무대조감독, 서사론 무대디자인보, 정용현	무대기술총괄, 신용수 제작감독, 홍영진 조명감독, 임수연 음향감독, 주원국 의상감독, 박지수	기획/편집, 김미선, 이민서 디자인, 워크룸 줄거리 번역, 알리사 김 원고 번역, 유혜련, 서정에 일러스트(제작과정), 이효선 인쇄, 인타임	Interpreter, Hong Soo-yeon Stage Manager, Park Suye Assistant Stage Manager, Suh Sharon Assistant Stage Design, Jung Young-hyun		Editor, Kim Mi-sun, Lee Min-seo Design, Workroom Synopsis Translation, Alyssa Kim Programme Note Translation, Ryoo Hyeryun, Suh Jungye Illustration(Production Process), Lee Hyosun Printing, Intime
		제작, 국립극단, 버밍엄레퍼토리씨어터, 한영씨어터 협력, 버밍엄시립대학교	Head of Stage Technicians, Shin Yong-soo Technical Director, Kim Mu-suk Stage Production Director, Hong Young-jin Lighting Director, Lim Su-yeon Sound Supervisor, Joo Won-kook Wardrobe Master, Park Ji-soo		Executive Producer, Kim Sung-je Producer, Kim Mi-sun Company Manager, Lee Min-seo
					Artistic Director of NTCK, Lee Sung-youl Produced by Theatre For Young Audiences Research Center, NTCK
					Co-Production,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Birmingham Repertory Theatre, Hanyong Theatre Association, Birmingham City University
					Special Thanks to Lee Child WA Cadbury Trust Andrew Garrett Charitable Trust

재단법인 국립극단	사무국장 오현실	무대기술팀 팀장, 신용수 기술감독, 김무석 무대감독, 김승철 신승호 음향감독, 음창인 이병석 조명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무대제작감독, 최슬기 홍영진 무대기계, 임재호 무대의상, 박지수 연수단원, 김민주 윤성희 주원국 김태진 김민정 나누리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소장, 김성제 프로듀서·국제교류, 김미선 연구원, 손준형 예술교육, 최은정 연수단원, 권은지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내이비(주) 경영고문 이성열 이사·(재)국립극단 예술감독 김성규 감사·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고희경 이사·홍익대학교 교수 이상우 이사·고려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국립중앙극장장 김성일 이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작품개발실 실장, 정명주 작품개발·학술, 지영림 청년인턴, 김소연	공연기획팀 팀장, 지민주 프로듀서, 김옥경 김영래 김철순 심소연 박성호 정재영 청년인턴, 김소현 이아름	2018 시즌단원 이수미 정원조 최지훈 이종무 김한 주인영 장지아 양서민 이원희 김수아 박경주 정세별 홍아론 임준식 이호철 강해진 박가영 조남용
예술감독 이성열	홍보·마케팅팀 팀장, 정용성 마케팅, 박보영 최윤영 한나래 김태은 이다영 이승아 김효진 홍보, 오지수 이정민 고객지원,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보연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김수현 청년인턴, 소여진	경영관리팀 팀장, 정광호 대외·평가·예산, 신민희 예산·회계·세무, 현승은 박지민 이민주 북부·북리후생, 이민희 시설·안전관리, 정병욱 정보화·교육, 박예원 경영기획·인사, 최태영 예술감독 비서, 김시내 노무·자산, 주현우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서울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
청소년극



연출. 피터 윈 일슨
아트디렉터. 여신동

출연
김민주, 라자크 쿠코이
강정임, 타히라 샤리프
홍아론, 마이클 코쥬

주최
국립극단

예술감독
이성일

국립극단 1644-2003
인터파크 1544-1555

SHINSEGAE
韩新新世界免税店
푸른티켓

제작



BIRMINGHAM
REPERTORY
THEATRE

한영 HANYONG
THEATRE

협력



BIRMINGHAM CITY
University

KOREA-UK
TYA PROJECT



한국-영국
청소년극 프로젝트